2025년 4월 29일 〈화요일〉

제 312호 대표전화 043)234-0840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 공공디자인이즘

버려진 것에 가치를, 디자인에 철학을

사람과 자연,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며 균형있게 공존하는 삶을 디자인하는 기업이 있다. 바로 환경과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철학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공공디자인이즘'이고 주인당

이곳은 단순한 공간 미화가 아닌, 생태적 가 치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디자인 솔루션을 바탕 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페플라스틱, 현수막, 소방복 등을 업사이클링 한 공공 굿즈 제작, 주민참여형 마을 프로젝트, 환경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 께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NGO ·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며,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넘어 함께 살아가며, 미래를 디자인하는 공공디자인이즘의 허진옥 대표이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 어떤 계기로 지역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디자인이즘'을 시작하게 됐다.

처음에는 시민 참여형 디자인 캠페 인에서 출발했지만, 캠페인 후 버려지 는 디자인 결과물이 또 다른 환경문제 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게 됐다.

이 과정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현재는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핵심 미션으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NGO, NPO, 공공기관과 협업하며 자연스럽게 사회공헌의 폭도 넓어졌고, 자체 프로젝트 기획이나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다.

-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역의 환경보존과 주민과의 공존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활동 에 중심을 두고 있다.

단순히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경적·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설계를 통해 건강한 생태 구조 를 지향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마을 공공디자인 프로젝 트를 비롯해, 행사 조형물과 현수막도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자원 순환이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한다.

또한 지역 내 취약계층과 일감을 나 누며 사회서비스와 복지를 함께 실현 하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공공디자인이즘 전경.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끊임없는 사회적 가치 창출 마을공공디자인부터 폐자원 업사이클링까지… 종합적 사회공헌 전략

최근에는 폐플라스틱, 현수막 원단, 소방복 등을 업사이클링해 생활용품이 나 굿즈를 제작하는 등, 자원 재활용을 통한 사회공헌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 고 있다

-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사회공헌활동을 단순한 의무가 아 닌, 기업의 비전을 실현하는 전략적 과 정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성과는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 이며, 이를 위해 관계 중심, 생태 중심 의 디자인을 비즈니스 전반에 녹여내 고자한다.

특히 '공공디자인이즘'이라는 철학 이래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 시민들이 공감하고 직접 참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 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 환경적 가치를 효과 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미지와 영상 등 설득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 으며, 이는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확산 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된 소감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이 외 부로부터 꾸준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이 성과는 단지 내부 구성원만의 결 과가 아니라, 함께 협업해온 기관과 시 민들과의 공동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느낀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해온 다양한 활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상호 발전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다시한 번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성과를 공유하고, 더 많은 시민과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난관은 없었 는지?

작은 어려움은 늘 있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 움'을 유지하는 일이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왜 이 활동을 시 나갈 것이다.

작했는지, 어떤 목표를 항해 가는지를 명확히 하고, 참여자 모두와 성과를 공 유하는 구조를 갖추려 하다 보니 초기 에는 부담도 컸다.

그러나 꾸준한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 이 사회변화에 직접 참여하며 얻는 만 족감이 공감대로 자리 잡았고, 지금은 자발적인 참여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비전에 맞춘 사회공헌활동은 이제 하나의 전략적 비즈니스 활동처 럼, 지역사회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 · 실행되고 있다.

-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2022년 가을, 개방형 공간 현상의 공 간이즘을 조성하며, 환경 실험과 자원 순환을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 전시키고 있다.

이 공간은 지역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며, 실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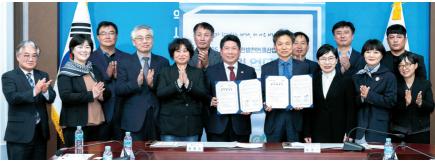
지난 3년간은 지역 내 대학생,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마을공동체와 함께 리빙랩(Living Lab)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각자가 정의한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보는 프로토타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등 의미 있는 경험을 쌓아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며, 마을 내 쓰레기 배출 문제를 해결하거나, 폐자원을 업사이클링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생활 속 에너지 절감을 위한 워크숍등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해 보는사회공헌활동을 기획 중에 있다.

또한, 환경적가치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시도하여 버려지는 소재의 새로운 쓰임을 찾고, 환경폐기물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체품을 개발하면서 환경적 성과를 확대해 나라 것이다.



공공디자인이즘 직원 단체사진.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와 충북 시·군협의회 관계자들이 성공개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천한방엑스포, 충북 시·군협의회와 업무협약

엑스포 성공 위해 관람·홍보 협력 강화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 위원회(조직위원장 김영환)는 지난 11 일, 충청북도 및 시·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유응모)와 업무협약(MOU)을 체 결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엑스포 단체 관람 유치 및 홍보 협조, 협의회 회원들 의 엑스포 관람 지원, 양 기관의 상호 발 전과 협력을 위한 공동 추진 사항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엑스포의 성공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될 것"이라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도내 각 시·군 협의회와 회원들이 함께 엑스포에 힘을 실어주시길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응모 회장은 "우리 협의회는

복지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와 연결 되어 있다"며 "이번 엑스포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참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 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순경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장은 "제천에서 열리는 엑스포가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공적으로 마 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 업엑스포는 오는 2025년 9월 20일부 터 10월 19일까지 30일간, 제천한방엑 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한방과 천연물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대한민 국 대표 산업 박람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2025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충북도, '일하는 밥퍼' 국가브랜드 대상

김영환 지사, 개인 최고 영예 '명예의 전당' 헌정

충북도는 2일 서울에서 열린 '2025 뉴 욕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일하는 밥퍼' 사업으로 도 시브랜드 복지정책 대상을 수상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개인 부문 최고 영예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는 쾌거 를 거뒀다.

이로써 충북도는 2023년 '못난이 김 치' 2024년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 다'에 이어 3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은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 욕페스티벌이 주최하는 글로벌 브랜드 시상식이다. 매년 국내 소비자와 전문 가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 브랜드와 개 인을 선정하고 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노인들이 경로 당과 전통시장에서 단순 작업을 수행하 고 활동비를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충북 도의 복지 프로젝트다.

현재까지 44개 경로당과 35개 전통 시장에서 6만1000여명이 참여했고, 노 인의 자존감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 는 두 가지 성과를 거뒀다.

김영환 지사는 "일하는 밥퍼는 복지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한 충북만의 실험이자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작은 힘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주시,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

전국 최초 '노사 공동운영'… 2027년까지 3년간

청주시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 과 직무 능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9일 흥덕구 송정동에 송정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개관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에서 개최된 개관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김성택 청주시의회 경 제문화위원회 위원장, 연창석 고 용노동부 청주지청장, 차태환 청 주상공회의소 회장, 홍성수 한국 노총 충북본부 청주지역지부 의 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2016년 국토교통부 행 복주택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기존 복지관과 근로복지회관 을 철거하고 대체 복지관으로 송 정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추 진했다.

LH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비 29억원을 투입 해 지하 1~지상 4층, 건축면적 1181㎡ 규모로 복지관을 조성했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했으며, 선정심의위원 회를 거쳐 청주상공회의소와 한 국노총 충북본부 청주지역지부 컨소시엄을 운영법인으로 최종

노사 대표 기관이 근로자종합 복지관을 공동 운영하는 것은 송 정근로자종합복지관이 전국 최 초다. 청주상공회의소와 한국노 총 충북본부 청주지역지부는 오

서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노사 파트너쉽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 한 강좌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범석 시장은 "송정근로자종 합복지관은 전국 최초로 노사 대 표 기관이 공동 운영해 지속 가 능한 노사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 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청주 상공회의소와 한국노총 청주지 부가 힘을 합쳐 지역 경제 발전, 근로자 복지 향상을 이루도록 청 주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



음성군, 어르신 '일하는 밥퍼' 작업장 확대

노인 사회 참여 유도… 실비 지급 봉사활동

음성군은 충청북도 노인복지 시책의 일환인 '일하는 밥퍼' 사 업의 작업장을 최근 7개소로 확 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일하는 밥퍼' 는 소외된 노인에 게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경제 · 정서적 도움을 주는 일종의 노인 봉사활동으로, 경로당이나 기타 작업장에서 하루 2~3시간 정도 자동차 부품 조립, 스티커 부착, 종이 쇼핑백 조립 등 기업의 일감 을 처리하고 1만원~1만5000원 의 온누리상품권 등을 봉사활동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최근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회장 장양원)에서 경로당 단 체작업장을 갑산2리, 충도3리, 신천휴먼시아주공아파트, 후미3 리, 비산2리, 무극11리(금왕주공 3단지) 등 6개소로 확대 · 운영해 63명의 경로당 회원이 참여하고

그리고 음성군노인복지관(관 장 임종훈)에서 기타작업장 1개 소를 운영하면서 30명의 개인 참 여자가 일감을 처리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갑산2리 경로당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양원 지회장은 "일하는 밥 퍼 실버봉사단을 통해 어르신들 이 자존감을 높이고, 성취감과 만 족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7월 개원 목표 '속도'

다나씨엠 운영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

제천시가 '공공산후조리원 수 탁기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나씨엠(대표 이기국, 서울특별 시 강동구 소재)을 공공산후조리 원 운영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 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산모와 신생아 의 건강을 위한 안전하고 전문적 인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을 목적 으로 수탁기관의 전문성, 사업수 행 능력, 운영 계획, 안전관리 계 획의 타당성,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출산율 감소와 함께 산후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 내 산후 조리원의 부재로 불편을 겪는 산 모들에게 전문적인 산후조리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산후 조리원을 설립하고 있다.

시는 선정된 수탁기관과 함께 오는 7월 개원을 목표로 시설 구 축과 인력 채용 등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기국 대표는 "제천시와 협력 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산후조

리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 하겠다"며 "모든 산모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의 신체 회복과 정서적 안정,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전 문적이고 체계적인 산후관리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규 시장은 "이번 수탁기관 선정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시민 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 는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앞 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 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이 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유응모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043-234-0840 FAX: 043-234-0849

E-mail: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www.043w.or.kr



단양군, 청년 창업자 소통·협업 네트워크

청년 창업자 20여명과 함께 협력방안 모색

단양군이 청년 창업자들의 소 통과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행 사를 여는 등 '청년이 살고 싶 은 도시' 조성을 위해 '톡톡데이 (Talk Talk Day)'를 8일 진행했

이 행사에는 2019~2025년까 지 단양군 청년 창업자로 선정 된 20여명이 참석해 창업 경험 을 나누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 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김문근 군수도 행사에 직접 참여해 청년 창업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청년창 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 원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 를 이어갔다.

행사에서는 창업자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다 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군은 이 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창 업자 롱런(Long-Run) 지원사 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단기적인 창업 지 원을 넘어 청년 창업자들이 장 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먼저 창업자의 브랜드 정체성 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인보드를 각 사업장에 설치해 청년 창업자임을 명확히 알리고 사업장의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 다. 또 마케팅 패키지를 제공해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지원하고 파워블 로거나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한층 끌 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창업자를 위한 '스타터 마케팅 패키지'를 운영 해 초기 창업 단계에서 겪는 마 케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 안착을 도울 방침이다.

이외에도 창업자 간 정보 교 류와 전문가 Q&A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성 화해 실질적인 창업 노하우가 공유되는 소통 공간으로 발전시 킬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군은 청년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강 화하고 협업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별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천군, 고독사 예방 '이웃 연결단' 구성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진천군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 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 인적 안전망 '이웃 연결단'을 구 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8 일 밝혔다.

'이웃 연결단'은 주변 사회적 고립 가구를 조기 발견하고. 정 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사회 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지역 주민 활동 조직이다.

기존의 인적 안전망인 명예

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이웃 연 결단은 사회적 고립 또는 고독 사 위험 징후를 보이는 이웃이 있으면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에 알리는 역할을 한 다. 이후 사회적 고립 고독사 위 험 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하고 읍 · 면 행정 복지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고독 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가정방 문조사에도 함께한다.

사회복지 공무원과 참여를 원

또한. 사회적 고립 고독사 위 험 가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 내자, 조력자의 역할도 담당한

이번 발대식에서는 군 지역사 회 보장협의체와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 소외되 는 군민이 없는지 이웃 연결단 과 함께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충주시, 활기찬 노후 위해 노인대학 4곳 지원 확대

건강 · 취미 등 실생활 중심 교육 제공

충주시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과 평생학습 기회 확 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나섰다고 10일 밝

시가 올해 지원하는 노인대학 은 총 4곳으로 대한노인회 충주 시지회 부설노인대학(80명), 노 은면 노인대학(100명), 충주실 학(70명) 등 330여명의 어르신 이 참여하고 있다.

노인대학은 3~12월 격주 또 지원하게 된다. 는 주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 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활동, 교양강좌, 일상생활 기술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목 들로 구성돼 있고 참여 어르신 호응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 버대학(80명), 효성교회 노인대 다. 특히 올해는 프로그램 다양 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노인대 학 운영비를 지난해 대비 확대

조길형 시장은 "앞으로도 다 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마련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교육 내용은 건강관리와 취미 노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

"맛있는 나는, 사람의 일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수문		기무 식품군	모십가능기한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가공 식품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최소 30일 이전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장류 및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최소 30		
	식용류	기름류	식용류, 참기름 등		
	음	료류	쥬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신선	육가공류	핫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7이 이저	
	식품	농산물 두부, 순두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최소 7일 이전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당일)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미제리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제류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축 기 교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신체 위생용품류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위생용품류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충북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법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보은군, 연령·횟수 제한 없이 시내버스 무료화

예산 4억4000만원 확보… 7월부터 시행

보은군은 15일 대중교통체 계 개편 및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에 따라 단계별 시행(70 세 이상→청소년→전 군민)과 전면 시행(전 군민) 방안을 놓 고 검토한 결과 전면시행하기 로 결정했다.

단계별 시행의 경우 시스템 구축비와 교통카드 제작비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한 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올 하반기 4 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농어촌버스에 대해 전면 무상 지원에 들어간다.

특히 관외 거주자가 미원이 나 옥천, 상주 쪽에서 버스를 타거나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무료 로 이용 가능하다. 횟수 제한

이와 함께 군은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 하면 결초보은상품권을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급 하는 조례를 개정 중이다.

지

이영철 군 교통팀장은 "전 면시행이 단계별 시행보다 예산 절감과 불편해소에 효 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다 만 손실액 보조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버스마다 계 측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괴산군, 장애·비장애 통합'반다비국민체육센터' 준공

총 사업비 150억원 투입… 수영장 · 헬스장 등 갖춰 5월 시범 운영 후 전국대회 유치ㆍ체육도시 기반 확대

괴산군은 지난 4일 괴산반 다비국민체육센터의 조성사 업을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개 최했다고 밝혔다.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생 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이 마 침내 문을 연 것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송인헌 군 수, 김낙영 군의회 의장을 비 롯해 군의원, 유관기관 단체 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수, 경과보고, 장학금 기탁, 감사패 전달, 축사, 테 이프 커팅, 시설 관람 등의 순 으로 진행됐다.

괴산읍 일원에 조성된 반 다비국민체육센터는 총사업 비 150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연면적 3326.96m²)로 건립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다비 센터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표 준설계를 적용했으며, 휠체어 이용자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설계를 갖 췄다.

주요 시설로는 농구, 좌식배 구, 배드민턴 등이 가능한 다 목적체육관과 25m 수영장(장 애인 전용 2레인, 비장애인용 3레인), 가족샤워실, 체력단 련실(헬스장) 등이 있으며, 장 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 할 수 있는 통합 체육 공간으 로 조성됐다.

송인헌 군수는 "반다비국민 체육센터는 차별을 허물고 모 두가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라며 "괴산을 스포츠 명품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체육 인프라 확충을 지속하겠 다"고 밝혔다.

군은 5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민간위탁자 선정 등 관련 행정 절차도 이 달 중 마무리한다.

더불어 각종 전국 단위 체육 대회 유치와 파크골프장, 시 니어친화형 체육센터 등 신규 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도시로의 도 약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옥천군, 쉼과 도전이 공존하는 청년공간 '청년이랑'



옥천군 '청년이랑' 전경

카페 · 공유주방 등 청년 소통 · 참여 공간

옥천군이 청년의 자립과 정착 을 지원하기 위해 옥천군 청년센 터 '청년이랑'을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옥천군은 그동안 다양한 청년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지 만 청년 간 교류를 촉진할 수 있 는 전용 공간이 부족해 늘 숙제로 남아 있었다.

이에 군은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 남부출장소 부지를 청 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공 간 '청년이랑'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날 개소식에는 황규철 옥천 군수와 지역 청년 50여명이 참석 했으며 센터 조성 과정과 내부 공 간 소개순으로 진행됐다.

청년이랑에는 카페, 공유주방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 며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앞으로 이곳은 청년 정책과 활동 을 연결하는 허브이자 지역 청년 들의 사회 참여를 뒷받침하는 든 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규철 군수는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청년이 머물러야 미 래가 있다는 생각으로 '청년이랑' 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이 머물고 돌아오고 싶은 옥천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관심 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괴산성모병원, 올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개설



괴산성모병원 전경.

괴산성모병원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선정… 운영비 지원 등

괴산군은 괴산성모병원이 보건 복지부 주관 '의료취약지 소아청 소년과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 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의 유일한 종합병

원급 급성기 의료시설인 괴산성 모병원에 소아청소년과가 개설

이 사업은 필수의료서비스 중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부족한 취 약지역의 역량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시설 · 장비비, 운영비 등 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2023년 지역응급의료기관으 로도 지정된 바 있는 괴산성모 병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소아청 소년과를 개설해 진료를 시작한

공모 선정으로 올해는 운영비 1억2500만원과 시설·장비비 1억9200만원이 지원되고, 이후 부터는 연간 2억5000만원의 운 영비가 지속해서 지원될 전망이

괴산성모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시작하면 공공보건의료 법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에 속한 도내 시군은 영동군. 단 양군만 남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아청소년 과 개설을 통해 외부 지역으로 나 가야 했던 진료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 의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증평군, 충북형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일자리 시범운영 첫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자립지원

증평군이 충청북도에서 추 사업이다. 진하는 장애인일자리 시범사 업에 선정돼 '충북형 최중증장 애인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시장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맞 (창작형), 장애인식개선활동, 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군은 수행기관으로 증평군 장애인복지관(관장 정찬연)을 선정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위탁운영 한다.

참여자들은 문화예술활동 권익옹호활동(공익형) 등 다 양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적 성에 맞는 경험을 쌓고, 경제 활동을 통해 성장과 자립의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

중심일자리 사업에 대한 자세 한 사항은 증평군장애인복지 관(☎043-835-4797)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이 장애인의 잠재된 가능 범 운영한다.

성을 발견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 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 다"며 "앞으로도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충북형 최중증장애인 권리 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 다"고 말했다.

충북형 최중증장애인 권리 중심일자리 사업은 증평군,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음성 이재영 증평군수는 "이번 군등 도내 5개 시 · 군에서 시

영동군, 관광 캐릭터 디자인 공모전 개최

전체 상금 800만원… 5월 12일부터 접수 시작

영동군은 내달 12일부터 30일 까지 관광 캐릭터 디자인 공모전 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자 는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최대 2점 까지 출품할 수 있고 중복 수상은

상금으로 최우수상(1명) 500만 원, 우수상(1명) 200만원, 장려상

(2명) 각 50만원이 지급된다. 품, 각종 홍보물, SNS 콘텐츠 다.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누리집의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

군 관계자는 "지역의 관광 자 원과 정체성을 반영한 개성 있고 친근한 캐릭터를 발굴하기 위해 수상 작품들은 향후 관광기념 이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말했



종

행안부, 위기가구에 생필품 · 안부 전달

청주 · 옥천 선정···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확대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 공동체추진단과 우정사업본부 는 4월부터 31개 지자체와 함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인 집배 원이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 를 사전에 파악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고독사 위험요인 등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 과, 각 지자체 담당자와 안부살 핌 대상자의 호응이 높아 올해 에는 사업 지자체를 15개에서 31개로 확대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 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31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충북의 선 정지역은 청주시 · 옥천군이다.

먼저, 선정된 31개 지자체는 집중관리 대상 가구를 선별해 1~4주 단위로(지자체별 탄력적 운영)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해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배송하게

우체국 집배원은 배송 과정에 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 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회신 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 업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게 물품구매와 운영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 체국은 국민 곁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 을 보살필 것"이라며, "행정안전 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위기 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손실 최대 100% 보상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대상기관 10개소 선정

보건복지부는 3일 고위험 산 모 ·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최종 대상기관으로 충북 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0곳을 선정했다.

최종 대상기관은 의학계, 환 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 성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 체의 선정평가를 거쳐 결정했 다.

대상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학교병 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 교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 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 공단 일산병원이다.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 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 모 · 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 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법' 등 7개 법률안 의결

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 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 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 상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후보상은 지난해 1 월부터 12월 손실분을 이르 면 올 연말에 보상하고, 대상 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고위 험 산모 · 신생아 진료 과정에 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게 된다.

이를 위해 총 200억원 안팎 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

200만 자원봉사자와 함께 위기가구 찾는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위해 '발굴지원 교육' 제작 · 제공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전국 약 200만명의 자원봉사자 가 위기가구 발굴에 더 큰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위기가구 발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교안을 제작 해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전국에 활동 중인 자원봉 사자는 약 200만명(1365 자원 봉사포털 통계)이고, 이와 별도 로 18만6000명 이상(보건복지 부 통계)의 자원봉사자가 위기 가구 발굴에 참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 대부분은 지역주 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기가구 와 신뢰 형성이 용이하여 지역 내 복지기관, 주민센터 등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 는 핵심적인 자원이다.

또한 지역 내 위기가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공공기관의 데 이터로 포착되지 않고 사각지대 에 있는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 견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행안부는 자원봉사자의 교육 교안으로 이들의 위기가구 발굴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 다.

이를 위해 행안부 스마트복지 안전공동체추진단은 체계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방안을 알 리기 위해 자원봉사자와 지자체 에 '위기가구 발굴지원 교육(안)' 을 무료로 제공한다.

자료에는 위기가구의 개념과 정의. 위기가구 징후.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절차, 위기가구 지 원 · 연계 방법 및 활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등이 알기 쉽게 포 함되어 있다.

이번 '자원봉사자용 위기가구 발굴지원 교육(안)'은 지자체별 로 위기가구 발굴 연계지원 관

련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 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앙 부처 차원에서 꼭 필요한 내용 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작되 어 의미가 크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업무 안내'에도 교육자 료를 수록할 예정이며, 민간 기관과 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 누리집(www. mois.go.kr)에 게시할 계획이

한편. 행안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하는 민간과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 는 교육자료를 수집해서 공유 ·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찾아 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도 발간하고 있다.

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월 1만4000원)을 지원

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또는 '복

거주지에서도 지원 신청이 가능 토록 변경됐다.

생리용품 구매권은 신청한 월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 번 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에 도달 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하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 이번 개정으로 양질의 아이

성범죄자 취업 제한 확대… 가족 서비스 통합 추진

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아 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등 여성가족부 소관 7개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록기관에서 활동하는 돌봄인력(아이돌봄사 · 육아도 우미)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 련했다.

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사람은 여성가 족부장관으로부터 '아이돌봄 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고. 공 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 춰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 봄 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 한 관리권한(범죄경력조회 등) 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간 입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공적 관리체계가 갖춰지게 된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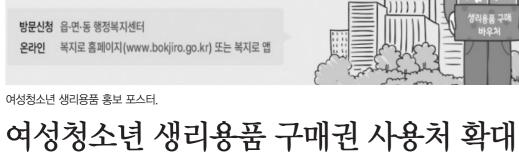
이외에도 지자체장의 아이 돌봄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 센터) 지정 · 운영의무 신설. 타 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 는 질병을 가진 사람은 아이돌 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의무 신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센터) 종사자의 결격 사유 등이 신설됐다. 개정 법률 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 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용 신청하세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매월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월 14,000원)를 지원합니다.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계층… 구매권 월 1만4000원 지원

여성가족부는 4월부터 5월에 걸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권 사용처가 26곳으로 2곳 확 대(기존 24곳)되어 구매권 이용 이 더욱 편리해진다고 2일 밝혔

4월부터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서 비씨카드와 삼성카드를 이용 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고, 5월부터는 비씨카드를 이용해 이마트24에서도 생리용품 구매 권 사용이 가능하다.

구매권은 카드사별로 이용 가 능한 유통점이 상이하므로 이용 자들은 카드사별 이용 가능한 구매처를 확인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 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계 층 · 법정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

하는 사업이다. 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 나 보호자(부모 또는 주 양육자) 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지로'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의 경우 올해부터 주 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에 실제

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책관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들이 더욱 편리하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 매처를 확대하고 서비스 접근성 을 개선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 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각 · 언어장애인, 119 직접 신고 가능

과기정통부-소방청 간 협업, 119 수어통역 서비스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 기정통부)와 소방청은 17일 디 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청 각 · 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 어통역 체계를 본격 개통한다 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과기정통부 유 상임 장관은 손말이음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체계를 점검하 고 수어통역사 등 센터 관계 자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

손말이음센터는 청각 · 언어 장애인이 수어 · 문자 등을 통 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 록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통

신중계 기관(☎107)으로, 2005 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 원이 운영해오고 있다. 그 간. 청각 · 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 도, 일반적인 통신중계 서비스 와 마찬가지로 청각 · 언어장애 인이 손말이음센터에 우선 연 락하여 통역사에게 수어로 상 황을 설명하면, 수어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 경우 119는 청 각 · 언어장애인이 아닌, 손말 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임에 따라, 해당 장애인의 전

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 어 위치파악을 통해 출동이 필 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과기정통부와 소방청은 청 각 · 언어장애인이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손말이음센 터와 119 종합상황실 간 직접 연계 체계를 구축하였다.

청각 · 언어장애인, 119 종합 상황실, 수어통역사 간 3자 영 상통화 체계를 만든 것으로, 이 체계를 통해 청각 · 언어장애인 은 119에 영상통화로 직접 신 고할 수 있게 된다.

119 신고 접수 직원은 청 각 · 언어장애인으로부터 신고 가 접수되면 손말이음센터를 호출하여 3자 영상통화가 진행 될 예정이다.



운영방식 비교 홍보물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봉사단 혜택 위촉기준 활동재료 지원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vms 가입되어 있으며,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관리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봉사활동 연계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한 단체 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전화) 043-234-0840 복지정보과 박 민 정 코디네이터



충북 사회복지 강화 힘 모은다

사회서비스원 등 26개 유관기관 올 주요사업 공유 신뢰·협업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품질 향상 기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이장희)은 지난 16일 '2025년 유 관기관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 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 협력 강화 및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 됐으며,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 회(회장 조수동)가 공동 주최했

이날 간담회에는 충청북도사

회서비스원을 비롯해 26개의 충 북도내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참 석해 각 기관의 2025년 주요 사 업 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관계 자는 "기관 간 소통과 정보 공유 를 통해 중복 사업을 줄이고, 각 기관의 정체성과 역할에 맞는 협

을 통해 연계 가능한 부분과 사

업 홍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

이어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 자리를 마련해 유기적인 협력 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 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충청북도 유관기관 간 신뢰와 협업을 바탕 으로 민 · 관 협치의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군사회복지사협회 '국악엑스포 성공 개최 기원'

입장권 구매 지원 100만원 기탁

영동군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 은예) 직원 일동은 지난달 31일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영동군에 100 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입장 권 구매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은예 회장은 "지역에서 열리 는 뜻깊은 문화행사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직원 모두가 참여 해 성금을 준비했다"며 "많은 군 민이 국악엑스포를 통해 전통문 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복지현장에서 늘



영동군사회복지사협회 직원 일동은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영동군에 100만원을 기탁했다.

애써주시는 사회복지사협회가 지역 문화행사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탁금은 엑스포 입장권 구입에 사용해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국악의 향기, 세계를 물들이다'

를 주제로 세계 30개국이 참가 하는 국제행사이다. 올해 9월 12 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 달간 영동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충북하나센터,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개소식

남북하나재단 운영 전환 북한이탈주민 정착 최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 한 충북하나센터(센터장 송은하) 는 지난 22일 통일부 안전지원과 강태성 서기관, 남북하나재단 이 주태 이사장 직무대행, 충청북도 도민소통과 강태인 과장, 각 구별 신변보호관. 북한이탈주민 자조 협회장 등 내 · 외빈 6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개소식은 지난 해 하반기 통일부가 하나센터 수탁기관 선 정을 위한 심의 결과. 수탁기관이



충북하나센터가 지난 22일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개소식을 진행했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 나재단으로 변경된 것에 따른 것 으로, 북한이탈주민 소해금 연주 자 박성진의 축하연주를 시작으 로 개회식, 개회사 및 축사, 성공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사례 발표 및 감사패 전달, 현판식 순으

로 진행됐다.

남북하나재단 이주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기존 재단 위탁 하나센터가 3개소에서 올해 4개소가 추가되어 총 7개소 가 되었고, 올해 신규로 지정된 하 나센터의 경우, 각각 2개의 상담

실을 구비하는 등 업무 중심으로 하나센터를 구성하였다"며 "이번 개소식을 통해 충북지역 거주 북 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독 거 · 고령자 중심의 업무를 수행 하는데 재단에서도 최선의 지원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충청북도 도민소통과 강태인 과장은 축사를 통해 "충북 하나센터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 하드리며, 충북도내 거주하는 북 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 한 허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송은하 충북하나센터장 은 "도내 지자체, 민간단체 등 유 관기관과 지속 연계 · 협력해 북 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 '가경 뜨락 에세이' 출간

19년만 첫 수필집… 회원 16명 글 3편씩 수록 김재범·김선희·박영순씨 열린동해문학 등단



제95회 열린동해문학에 등단한 (왼쪽부터) 김재범, 김선희, 박영순 수필가와 임미옥 지도강사가 가경 뜨락 에세이 출간기념회에 자리했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관장 김현 숙)은 지난 15일 별관에서 '가경 뜨락 에세이' 출간기념회를 열었 다. 이번 에세이는 '1인 1책 펴내 기 프로그램' 회원들의 수필을 엮 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청주가경 노인복지관 은세계도서관에서는 이야기꽃이 핀다. 그렇게 이야기 꽃을 피운지 19년 만에 첫 책 '가 경 뜨락 에세이'가 세상에 나왔다.

이번에 출간된 '가경 뜨락 에세 이' 창간호에는 지도강사 수필을 포함해 프로그램 회원 16명의 글 이 3편씩 수록됐다. 에세이에는 회원들의 소탈하고 진솔한 일상 속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이번 에세이 출간에 참여 한 김재범 · 김선희 · 박영순씨는 게재된 수필로 제95회 열린동해 문학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해 등단했다.

김재범씨는 "재작년 자서전을 내고 선생님의 추천으로 수필에 도전하게 됐다"며 "같이 등단한 분들이 있어 기쁜 마음도 있고 80 이 다 돼가는 나이에 또 다시 글을 쓸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앞으 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써 보려한다"고 새로운 목표를 다졌

함께 등단한 박영순씨는 "경험 이 제일 적어 등단은 꿈도 못꿨 다"며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등단한 3명에게는 오는 5월 15 일 열린동해문학 신인문학상을 수여한다.

한편 이날 행사는 1인 1책 펴내 기 이연희 회원의 축하 연주로 시 작해 개회사, 도서 발간 경과보 고, 도서 증정, 작품 낭송, 축하공 연으로 진행됐다.

1인 1책 프로그램의 임미옥 지 도강사는 "9년간 지도해주신 1 대 선생님 박영자 수필가에 이어 9년간 지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동안 막대한 비용으로 동인지 를 만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번 교실 회원분들께서 비용을 나눠 부담해주셔서 나올 수 있었 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성수 세계직지문화협회장은 축사에서 "기록문화의 도시 청주 시에서 이러한 사업이 진행돼 자 긍심을 느낀다"며 "개인의 기록이 가정의 기록이 되고, 가정의 기록 이 사회의 기록, 나아가 국가의 기 록이 된다고 생각해 앞으로도 사 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협 조하겠다"고 밝혔다.

'가경 뜨락 에세이'는 총 500권 이 출판됐으며 세계직지문화협 회, 청주시,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청주시 각 도서관에 기증할 예정 이다. 청주시와 세계직지문화협 회가 시행하고 있는 '1인 1책 펴내 기' 사업은 전국 유일하게 청주에 서만 진행된다.



충북모금회가 진행한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모금에 동참한 단체와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모금회, 영남 산불피해 5억2300만원 모금

기업·대학·단체 등 기부행렬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억 2300여만원을 모았다고 10일 밝 혔다.

우진전기에서 1억원을 기부했

으며 청주대가 4000만원, 주식회 사 LOC가 3000만원을 기탁했다.

십시일반 마음을 보태는 소액 기부도 이어졌다.

기부 내용을 보면 청주동부의 용소방대연합회 · 가덕전담의용 소방대 350만원. 청주시여성단 체협의회 230만원, 사단법인 해

피맘 충북센터 150만원, 흥덕사 랑봉사단 100만원 등이다.

영남지역 산불 피해 특별 모금 은 지난달 25일 시작됐으며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를 통해 산불 피해민 및 피 해지역을 위해 사용된다.

충북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7월 문 연다

3억 투입, 돌봄서비스 제공

자들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를 위해 오는 7월 충북도종합사 회복지센터 내에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3억원을 들 충북도가 장기 요양기관 종사 여 운영하는 이 센터는 요양보호 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 료사 등 도내 1131개 장기 요양 기관에서 근무하는 3만2000여 명의 종사자들의 건강 관리와 전 문성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노인 돌 봄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충북도는 운영 위탁 기관과 협 약을 체결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을 통 해 요양요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 하고, 보다 나은 노인 돌봄 환경 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유관기관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유복지플랫폼



'충북복지넷'











치매환자 가족 45.8% 돌봄 부담 호소… 경제적 어려움 가장 커

2023년 치매역학조사 ·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6년 이후 7년만에 전국 단위 대규모 조사 시행·위험요인 분석 2026년 치매 환자 100만명 돌파 예상 2044년 200만명 넘어설 듯

보건복지부는 13일 치매 유병률 및 치매 관련 위험요인을 분석한 치매역학조사 결과와 치매 환자·가족의 돌봄 부담 수준 및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조사한 치매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는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 이후 7년 만에 시행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치매역학조사로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에 관한 최신 통계 및 치매 발병 위험 요인을 분석 했다

이번 치매실태조사는 최초의 법정 실태조사로, 치매역학조 사와 연계하여 치매 환자를 선별한 후,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 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치매로 인한 질병 부담을 측정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치매역학조사 결과

① 치매 유병률 소폭 감소,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증가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지난 2016년 역학조사 치매 유병률 9.50% 대비 0.25%p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치매 유병률의 변화 요인으로는 먼저 1차 베이비붐 $(1955년 \sim 1963년)$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우리나라 1차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 출생자가 65세에 진입하면서 2016년 역학조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268만명 증가하였고,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치매 유병률 감소에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노년기 교육 수준 향상 및 치매 위험요인 변화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 비율이 2017년 24.8%에서 2023년 38.2%로 노년층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다. 또한 치매 위험 요인인 음주와 흡연 등 건강행태의 점진적 개선 및 치매 발생률과 상관관계가 있는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감소가 치매 유병률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지난 2016년 역학조사 시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22.25% 대비 6.17%p 증가한 수치이다.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치매와 경도인지장 애의 진단 기준의 세분화로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조기진단이 가 능하게 되었고, 치매 조기 검진 활성화로 치매에 악화되기 이전 단 계에서 진단이 이루어진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 세대의 건강 수준 및 치매 사전 예방관리 수준 향상이 치매로의 진행을 늦추면서 치매 유병률은 낮아지고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② 치매 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증가 추세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 수와 경도인지장에 진단자 수는 지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5년 치매 환자 수는 97만명(치매 유병률 9.17%), 치매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는 시점은 2026년, 200만명을 넘는 시점은 2044년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16년 치매역학조사 당시 예측치였던 2025년 108만명 (치매 유병률 10.32%), 2040년 218만명과 비교 시, 치매 환자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진단자수는 2025년 298만명(경도인지장애 유병률 28.12%), 2033년은 400만명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2016년 역학조사 당시 예측치였던 2025년 236만명, 2040년 403만명과 비교 시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치매 고위험군 분석

성별 치매 유병률은 남성 8.85%, 여성 9.57%로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성별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남성 0.7%p \uparrow , 여성 0.9%p \downarrow)을 보였다.

이러한 성별 격차 감소에서 주목할 점은 남성의 치매 유병률 증가 경향이다. 이는 남성의 흡연율, 과체중·비만율, 당뇨병·순환기계 질환의 높은 사망률 등 남성과 여성의 건강행태 차이로 추측된다.

연령별 치매 유병률은 75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고, 85세 이상은 20%대를 초과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매 유병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구간별로 남성과 여성의 치매 유병률 차이가 보였는데, 65세~79세까지의 연령에서는 남성의 치매 유병률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80세 이상 연령에서는 여성의 치매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80세 이상 연령대 여성의 급격한 치매유병률 증가가 전체 여성의 치매 유병률을 견인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첫째 동 5.5%, 읍 · 면 9.4%, 둘째 광역시 3.8%, 도 8.5%로 도시보다 농어촌의 유병률이 높았다.

가구유형으로는 독거가구 10%, 배우자와 다른 동거인 5.2%, 배우자와 거주 4.9%, 교육수준은 무학 21.3%, 고졸 2.6%, 대학교이상 1.4%로 나타나 독거가구,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치매실태조사 결과

① 치매 환자의 취약한 건강 · 기능 상태

치매 환자의 가구 형태는 1인 가구 52.6%, 부부가구 27.1%, 자 너동거가구 19.8% 순이었고, 중증도가 높은 가구에서 자녀동거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치매 환자는 전체 노인에 비해 건강 · 기능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의 1인당 평균 만성질환 개수 지역사회 치매 환자는 5.1개, 시설 \cdot 병원 치매 환자는 4.2개로 전체 노인 평균 2.2개 보

다 많았고, 청력과 저작능력도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우울 수준 역시 전체 노인 3.1점에 비해, 지역사회 치매 환자 5.8 점, 시설 · 병원 치매환자 7.1점으로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났고, 신체활동 및 영양관리도 전체 노인에 비하여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수준

지역사회 환자 가족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돌봄에 대한 부담(매우 부담 12.9%, 부담 32.9%)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비동거 가족의 경우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18시간, 외부 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유급간병인 등) 이용 시간은 주당 평균10시간으로 나타났다.

돌봄 과정에서 어려움은 지역사회와 시설 · 병원 치매 환자 가족 모두 경제적 부담(지역사회 38.3%, 시설 · 병원 41.3%)이 가장 높 았고, 요양병원 · 시설 입원(소) 전 가족 돌봄 기간은 27.3개월, 돌 봄 중단 사유로는 가족원의 경제 · 사회활동으로 24시간 돌봄 어 려움 27.2%, 증상 악화로 가족들 불편 25%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 돌봄 전후 가족의 삶의 질은 40% 정도가 부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그 중 정신적 건강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치매 환자 돌봄으로 인하여 타 가족원(동거, 비동거 포함) 과 갈등 경험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주요 갈등 사유로는 돌봄 에 따른 비용 부담과 집중된 돌봄 부담으로 응답하였다.

③ 치매 관리 비용

치매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는 1733만9480원, 시설·병원은 3138만1940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의 부담이 높았다.

지역사회, 시설 \cdot 병원 환자 모두 중증도가 높으면 전체 비용이 증가하고, 중증일수록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 비중이 큰 경향을 보였다.

④ 치매 관련 정책 체감도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와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안 심센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치매 환자보다 가족이 치매안심센터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의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률은 치매조기검진이 80%로 가장 높았고, 향후 이용 희망률은 치매조기검진 77.4%, 돌봄물품 제공 7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71.9% 순으로 응답하였다.

환자 지원 서비스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치매 환자 가족의 인지도는 약 80%,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는 67%~96%의 인지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치매 환자의 향후 이용 의향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가 70%를 상회하였고,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는 37.0%~69.2%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 가족들의 가족 대상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나(치매상담콜센터 지역 17.2%, 시설 \cdot 병원 32.7% 외가족휴가제, 연말정산 등 10% 내외), 향후 이용 의향은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치매 관리 및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욕구는 경제적 비용 경감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이번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치매 환자의 특성 및 치매 환자 \cdot 가족의 정책 체감도,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토대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sim2030$)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 노인 관련 주요 지원 정책들을 강화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치매 조기발견 및 초기 집중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보건소) 역할을 강화한다. 둘째,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 다빈도 방문 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치매 검사 · 예방 교육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독거, 부부 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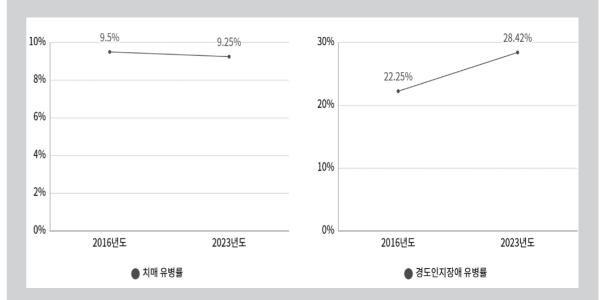
아울러 치매 가족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첫째,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 (1·2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월 한도액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등에 치매전담실을 확대하고 보호자 긴급 상황(입원, 출장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가 족휴가제도 확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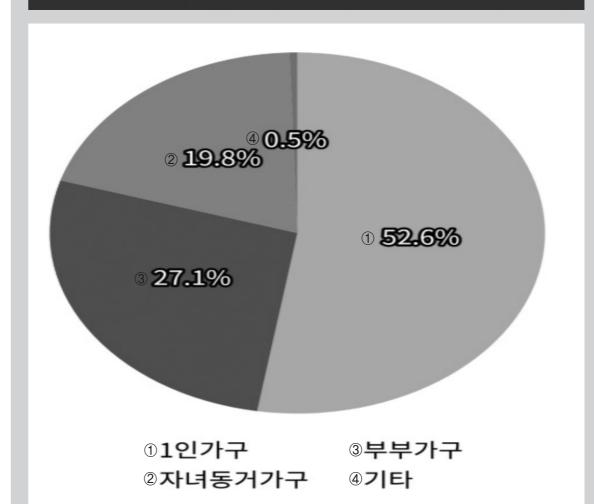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조사를 통해 치매 유병률 및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하여 치매 관련 미래 변화 추계 및 다양한 욕구 분석을 할 수 있었다"라며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치매역학조사 결과} 치매 유병률 감소,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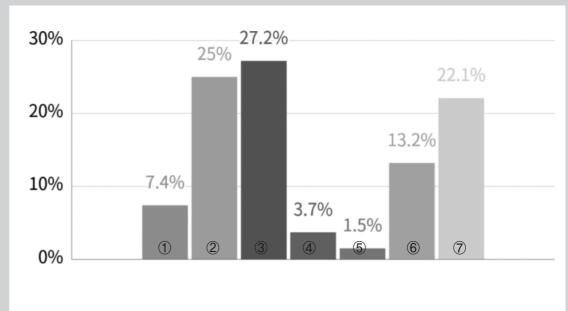


치매실태조사 결과 여성, 고령, 1인가구 등의 치매 유병률 높은 편



치매 가구 형태 비율

^{치매실태조사 결과} 절반 가까운 치매 환자 가족 "돌봄 부담 느껴"



① 환자 희망

② 증상 악화로 가족들 불편

③ 24시간 돌봄 어려움

④ 가족원의 건강문제

⑤ 기존 주돌봄자의 부재

⑥ 부적절한 집안환경

⑦ 전문적인 서비스 필요

요양 시설·병원 입소(원) 결정 이유

等別學學



조 수 동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조수동입니

이 인사가 참 좋다. 그래서 명함에는 늘 자랑스럽게 '사회복지사'라 새겨 넣는다. 의사, 변호사처럼 이름 뒤에 '사(士)'가 붙 는 직업은 많지만, 사회복지사처럼 앞뒤 로 '사'가 붙는 직업은 흔치 않다.

평생 이 직업으로 살아오며, 좋은 일도 가슴 아픈 일도 많았다.

첫 직장이었던 양로원에서 총무로 일 하던 시절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올림픽 무렵, 할머니들을 봉고차에 태워 마을 정 자의 어르신들과 즉석 미팅을 열어드린 적이 있다.

그날, 다소곳한 소녀처럼 웃으시던 할

'사회복지사'라는 이름

머니들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또 다른 기억도 있

'치매'라는 단어보다 '노망'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던 시절, 부랑인 시설에서 오신 할머니 한 분을 모시게 되었다. 보호할 곳 이 마땅치 않아 결국 용인의 국립정신병 원에 입원을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말았 다. 나는 아직도 그 일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주간보호센터를 보 면, 얼마나 좋은 시설인지 새삼 느껴진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님께서도 비록 코 로나를 이기지는 못하셨지만, 무려 10년 을 그곳에서 지내셨으니 말이다.

또,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으로 정말 특 별한 경험도 했다.

제일 높은 나랏님을 만나 악수를 나누 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도 참석했다. 평 가 1위 기관이라는 영예로 국무총리께서 직접 복지관을 방문한 날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어느 날은 출근하자마자 거래은행 지 점장께서 먼저 복지관을 찾아오셨다. 밤 사이 26억원이라는 거액이 기관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였다. 그 덕에 한동안 '강남의 큰 손' 대접 을 받기도 했다.

그 돈은 인천 지역에 장난감 대여점 9 곳을 열고, 각 지자체에 기부하는 데 사용

했다. 6개월 동안 매주 2억원씩, 아낌없 이 써 본 경험은 지금 생각해도 참 특별하 다. 그 시절만큼은 분명히, 인천시의 아주

특별한 고객이었다.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으로 30년 넘게 대학 강의를 했고, 일간지에 칼럼을 쓰고 시사월간지 데스크로도 활동했다. 십수 년 전, 한 번에 백만원을 받는 특강 강사로 나서기도 했으며, 베트남 · 페루 · 인도 등 에 유치원과 컴퓨터실을 만들고 의료봉사 활동을 하며 거침없이 세계를 누볐다.

그중에서도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결 혼상담(marriage counseling) 전문화'를 주제로 사회복지 분야 최초의 학위논문 을 발표한 것이다. 이 논문을 계기로 라디 오와 TV에 출연하게 되었고, 무려 2년간 매주 두 차례씩 방송상담원으로 고정 출 연하기도 했다.

그 무렵은 중국과의 수교도 되기 전이 었다. 그런데 극동방송을 듣고 찾아온 중 국의 장애인 단체와 인연이 닿았고, 조선 족 부녀회의 대리모 사업(소년소녀가장 돕기)을 도우며 방과후 교실을 만들고, 후 원 결연과 지역 복지를 실천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보인 셈이다.

이렇게 '자칭 최초의 결혼 전문 사회복 지사'가 되어, 장애인의 결혼 문제 해결에 30년을 바쳤고, 200쌍이 넘는 부부를 탄 생시킬 수 있었다.

이는 내 인생의 자랑이자, 스스로 가슴

에 달아준 훈장이다.

지나친 중국 방문으로 정보기관의 요 주의 인물이 되기도 했고, 보조금 없는 복 지를 위해 바자회를 열고 새벽마다 우유 를 배달했다. 강의가 너무 많아 결국 성대 에 무리가 와 '장애체험'을 하듯 목소리를 잃은 적도 있었다.

또, 3년간 비워두었던 공간을 어렵게 얻 어 칸막이부터 액자, 냉장고, 청소기까지 모두 버려진 물품을 재활용해가며 고생 끝에 멋진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개소식 을 하루 앞두고 옆집 화재로 전소되었다 는 파출소의 전화를 받았을 때는, 식은땀 에 휩싸인 채 기절하듯 쓰러지기도 했다.

그렇게 한 고비, 또 한 고비를 넘기며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 터, '이름'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되새기게 되었다.

한때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나를 보 며 '좋은 아빠'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큰 아이 이름이 '조은'이기 때문이다. 내겐 참 좋은 이름이다.

장애인을 '병신', '불구자'라 부르던 과거 는 부끄럽다. 이제는 '장애인'이라는 단어 조차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할 때다.

그것이 우리 사회복지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을 달고서 말이

等別學想

웃음이 사라진 사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김 영 기 충청북도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장

4월 1일,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 듯한 거짓말, 속임수가 허용되는

한때는 모두가 '속아도 좋고, 속 여도 좋은 날'로 여겼던 특별한 날 이 점점 조용해져만 간다. 말장난 과 농담, 작은 속임수와 웃음으로 가득했던 날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흔적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거 의 사라졌다. 어쩌면 우리는 의도 적으로 외면하고 있는지 모른다. 만우절이 사라지고 있다.

"왜 우리는 웃음을 멈췄는가?" 만우절은 단지 장난의 날이 아 니었다. 만우절은 거짓말이 허용 되는 유일한 날이지만 나름의 원 칙이 있다. 장난은 오전에만 해야 하고, 오후에는 장난임을 알려야 한다. 이렇듯 본질은 단순한 거짓 에 있지 않았다. 이날은 각박한 세 상 속에서 웃음과 유머를 통해 긴 장의 완화, 관계의 환기를 비롯한 권위와 일상의 경직된 틀을 유쾌 하게 비트는 장치였다.

유머는 인간관계를 유연하게 만 들고, 감정을 정화하며, 소속감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다. 사회복지 실천 측면에서 유머는 치료적 관 계 형성, 심리적 안정, 정서적 지지 에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돌봄 현장, 사회복지 프로그램, 상담 현장 등에서 유머는 때로 약 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 의미에서 만우절은 사회의 '감정 환기 시스템'이자 '심리적 완충장 치'로 작용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이것들을 잃어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 원인을 살펴보자면, 첫째, 관 계 기반의 사회적 신뢰가 약해졌 다. 장난과 농담에 웃으며 넘어갈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우 리는 혹시나 하는 의심과 "상처받 지 않을까"하는 걱정 등 '누구의 감 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 속에 갇혀 감정 교류가 메말라 가 고 있다.

둘째, 빠른 디지털 환경이 유머

의 안전지대를 무너뜨렸다. SNS 의 발달은 농담과 장난을 빠르게 퍼트리는 동시에 오해나 왜곡의 가능성도 키웠다. 누군가의 농담 이 논란으로 비화되기도 하고, 유 쾌한 의도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 도한다.

셋째, 우리는 거짓과 진실이 공 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SNS의 발달, 개인 미디어의 성장은 정보 가 돈이 되는 세상을 열었다. 인플 루언서라 불리는 이들의 인기를 기반한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성장했다. 보다 자극적인 것. 그것이 거짓일지언정 벌이의 수단이 된 정보는 가짜 뉴스를 양 산하고 있다. 가짜 뉴스로 인한 피 로도의 증가. 보이스피싱이 판치 고 딥페이크에 따른 피해가 속출 하는 세상 속 우리는 농담과 장난 의 여유를 누릴 수 없어졌다.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기 어렵 고. 정보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졌 다.

경제적 지원이나 제도적 보호만 이 사회복지가 아니다. 사람이 사 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질, 관 계성, 자아존중감, 감정의 회복을 다루는 실천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유머의 부재는 중요한 시 사점을 제공한다.

유머는 치유다. 장난은 친밀하 다는 신호였고, 유머로 서로를 위 로할 수 있던 사회적 건강성의 지 표였다. 웃음이 사라졌다는 건, 그 런 정서적 치유와 소통의 창구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웃음의 불평등'도 존재한다. 어 떤 농담은 특정 계층, 성별, 인종, 장애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구조적 불균형에 민감해야 한다. 웃음조차 누군가에게는 상 처가 될 수 있기에. 우리는 바로잡 아야한다.

우리 사회는 정서적 안전망으로 서의 신뢰를 기반한 사회여야 한 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 유머는 피곤하다. 속임을 당하는 것을 좋 아하는 사람이 없듯 거짓과 진실 이 명확한 사회여야 한다. 아이러 니하게도 유머나 장난, 농담은 진 실이 충만한 사회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어 야한다.

사회적 신뢰의 회복은 거짓과 진실이 명확한 사회, 나아가 농담 이 농담으로 웃음이 되는 사회일 것이다. 각박한 세상 속 여유를 찾 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도화된 문명의 이기 속 활용 주체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



김 용 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고등학생 시절. 사회복지사를 꿈꿨던 나는 늦깎이 신입 사회복지사로 마침내 그 꿈을 이뤘다.

하지만 학업에 치중한 나머지 현장 경 험이 부족했고.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는 게 두렵기까지 했다. 쭈뼛거리던 나를 바 라보던 어르신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그렇게 배움은 입사 후에도 계속되었다.

여러 사업을 맡아 다양한 어르신들을 만났고,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분들은 스 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난 어르신 들이었다. 처음엔 영상 편집을 목표로 수 업이 구성됐지만. 어플 실행부터 터치 방 법까지 낯선 어르신들에게는 어려움이 컸다.

수업은 난관에 부딪혔고, 첫 모임이 끝

멀어지는 사회로부터 내딛는 발걸음

난 뒤 나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어떤 걸 배우고 싶으신지 여쭈었다.

"나는 전화 받는 거하고 아들, 딸한테 전화 거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 문자 도보내보고싶어"

"이쁘게 사진을 찍어서 보고 싶은데 남 들은 잘 찍는데 내가 찍으면 항상 이상해. 사진 잘 찍는 법을 알려줬으면 좋겠어"

"요즘은 사람이 주문을 안 받는 것 같 아. 근데 내가 뭔지도 모르고 멀뚱멀뚱 서 있으면 뒷사람들이 눈치를 줄까 무서워 서 커피를 마시러도 못 가겠어. 기계로 주 문하는 방법 좀 알려줘"

어르신들이 배우고 싶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강사님께 전달드렸다.

강사님은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춰 수 업을 재구성해주셨고, 손떨림이 있는 분 들을 위해 터치펜도 도입했다. 카메라 어 플로 셀카를 찍고, 사진을 소개하며 웃음 꽃이 피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 간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5개 월 동안의 여정을 이어갔다.

또한, 키오스크 모의 주문도 연습했다. 우리에겐 익숙한 일상이지만 어르신들에 겐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 시간은 당사자 중심 사회복지 실천'을 향한 내 첫걸음이 기도 했다.

스마트폰 교육이 끝나고 두 달쯤 지난 어느 날, 팀장님께서 어르신들이 배운 것 을 바탕으로 복지관에서 무언가를 해보 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셨다.

다가올 복지관 행사를 더 풍성하게 만 들기 위해 어르신들이 찍은 사진을 전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 이유는 어르신들과 함께 논의하지 않 은 나 혼자만의 아이디어였기 때문이다.

처음 겪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 해, 나는 곧바로 어르신들과 모임 일정을 잡고 전시회에 대해 함께 의논했다.

그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의견은 "복지관에 전시할 이쁜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사진 촬영 기법은 잘 기억하고 계셨고, 활 용할 준비도 되어 있었지만 사진을 찍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한참을 함께 고민하던 중, 청남대 국화 축제 나들이를 제안받았다. 현장에서 찍 은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는 복습도 함께 이뤄졌고, 몇 개월 전만 해도 모든 것을 대신해달라던 어르신들은 스스로 사진을 보내셨다.

이렇게 어르신들은 함께, 계속하는 배 움을 이어나갔다.

그렇게 찍은 국화 사진과 어르신들의 미소가 담긴 사진들은 행사장 벽면에 전 시되었고, "이게 전시할 사진이냐"며 수 줍어하던 분들은 이내 뿌듯함을 감추지 못하셨다. 키오스크 사용은 여전히 어렵 고. 배운 것을 다 잊었다며 웃으시지만. 자식들에게 문자로 사진을 보내 자랑하 신다며 흐뭇해하신다.

1년 동안 배운 것을 다 까먹었다며 배

워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어르신들은 언 제 그러셨냐는 듯 나를 만나면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들에게 메시지로 보낸 사진 을 자랑하시고는, 자식들이 언제 이렇게 스마트폰을 잘 쓰게 되셨냐는 소리를 들 었다며 자랑을 하신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달라진 어르신들 의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끼고, 내 안의 열정을 되새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어르신 들은 지금,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계신다.

떨리는 마음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첫 걸음을 내딛은 나 또한 어르신의 한마디 로 프로그램을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었 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선(先), 날 생(生), 선생을 한자로

풀이하자면 '먼저 살아온 사람'을 뜻한다. 십 수년을 더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왜 나 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 걸까? 단지 스마트폰 하나를 활용하는 방법

을 가르쳐드렸기 때문일까? 그것만으로 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내게 아직 어울 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어르신 들이 불러주시는 단지 세 글자 '선생님'에 큰 무게감을 느낀다.

'선생님'이란 말이 아직은 부끄럽지만, 어르신들의 그 말 한마디 덕분에 나도 매 일 배운다. 오늘도 나는 어르신들 덕분에 성장하

는 사회복지사로 살아간다. "정말 감사합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홈닥터



합률홈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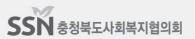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이 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임대인과 2020 년 5월 1일 보증금 1억, 임 차기간 2년의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살고 있 습니다. 임차기간 만료 1 달 전인 2022년 3월 즈음 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 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 이라고 했으나, 임대인은 2022년 4월 30일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 오면 반환하겠다며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 루고 있습니다. 저는 사정상 다른 곳으로 하루 라도 빨리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1달 전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 므로 임대차계약은 2022년 4월 30일에 종 료되었고, 보증금을 기한까지 주지 않을 경 우 임차권등기 명령신청과 동시에 보증금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

환소송을 하는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 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3).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되 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 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나,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임차 인은 임차목적물에서 이사를 나가도 여전히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 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 혼자 신청할 수 있고 그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며 설사 추후 보증금을 지급하여 말소가 되어도 등 기부등본에 그대로 임대차등기 및 말소 내 용이 남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에게 심 리적 압박이 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보 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 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임차인은 보증금 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연12% 의 지연이자까지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인사동정

- 보은군장애인보호작업장
- ▷ 원장 정준영 / 4월 1일자

■ 증평삼보사회복지관

- * 증평종합 · 삼보사회복지관 통합 ▷ 관장 오종식 / 4월 1일자
- 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

▷ 관장 신정인 / 4월 1일자

[함께하는 사랑밭, 위기가정 희망지원사업]

극복 지원, 온라인 모금

*사례관리실무기관

청서 작성/이메일 제출

다] 참여기관 모집 안내]

소년 및 보호자

들이 프로그램 진행 가능)

■ 참고: www.kdcf.or.kr

■ 문의: 지역별 문의처 상이

캠페인 지원

관

시설

■ 지원대상: 전국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 지원내용: 청소년 결연 지원, 생계·의료·

■ 신청기관: 아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

* 지원금 전용 기관계좌 개설 및 집행 가능 기

■ 지원기간: 연중 상시(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withgo.or.kr)

내 '위기가정 희망지원사업' 페이지 접속 및 신

[김대일문화재단, 2025 나들이 지원사업 [놀이; 하

■ 신청요건: 아동양육/보호시설에 해당하는

- 보육원, 그룹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청소

- 신청기관에서 생활 중인 취약계층 아동/청

- 신청기관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 및 인솔자

■ 신청기간: 2025년 3월~10월 중 상시 모집

■ 지원내용: 나들이 프로그램 진행 비용 250

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1박2일 또는 2박3일 나

년 쉼터 등 지원대상자 거주 및 생활시설

- 사업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필수

■ 지원대상: 해당 시설 이용자 및 관계자

회복지기관(대상자 개인신청 불가)

인사동정 이용 안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기관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시는 시설은 문의 바랍 니다. **※043-234-0840 김세나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봉사단

실버인지놀이봉사단, 프로그램 보조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소속 '실버인지놀이봉사 단(단장 이춘자, 이하 봉사단)'은 22일 진천군보건소에서 치매예 방프로그램(보드게임) 보조 봉시 활동을 진행했다.

이춘자 단장은 "실버인지놀이 로 지적, 정서적 측면을 고루 자 극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 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자는 취지로 시작해 어르신들과 함께 협력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 음을 다시 배웠다"며 지속적인 공부를 통한 성장과 봉사활동에 대한 열정을 표했다.



더불어, '실버인지놀이봉사단' 은 대부분의 단원들이 실버인지 놀이지도자 양성 과정 프로그램 을 수료 하였으며, 2025년 충북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

으로 위촉됐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 입되어 있는 2인 이상 자원봉사 자로 기술 및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활 동 혜택으로는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맞춤형 봉사활동 연계, 봉 사활동 활동재료 지원, VMS 봉 사실적 관리, 우수봉사단 표창 등 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사회복 지협의회 누리집(www.043w. or.kr) 또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 의회 복지정보과(☎043-234-0840)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만/평

혐오

이창신 www.bokmani.com

岩影冷华? 메수나? 바라바냐 빌라도 예약 실자가에 못박으소H



혐오는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복지정보 제공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 · 기관 종사자 ■ 발송내용: 도내 사회복지 행사 안내 및 유관
- 기관 공모사업 제공 ■ 발송횟수: 주 3회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방법: '충북복지넷' 홈페이지(www.0 43w.or.kr) 팝업창 참고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5년도 유니버설디자인체 험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진행일시: 3월 ~ 12월 (연중 신청가능)
- 진행장소: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청주시 흥덕구공단로 87, 1층)
- 진행대상: 초·중·고등학생,대학생,성인 등 도내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자 및 이용자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신청 인원은 회 차당 20명 이내로 가능함
- 주요내용: 유니버설디자인(UD) 이론 교육. 유디체험관 및 주택체험관 견학
- 신청방법: 전화 접수(T. 043)234-0840~2)
- 참고: www.043w.or.kr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국가건강검 진 수검 이벤트 안내]

- 참여기간: ~2025. 6. 30.(월)
- 참여대상: 충청북도 등록 장애인 200명
- 참여방법: 참여기간 내 국가건강검진(일반 검진, 6대 암검진) 중 1개 이상 검진 시 자동 참 여(별도 응모 필요 없음)
- 추첨일자: 2025. 7. 31.(목) 예정(등록 주소 지로 안내문과 함께 기념상품 발송)
- 상품: 2만원 상당의 고급텀블러
- 문의: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의료지 원팀(043-269-2704)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 안내]

- 사업내용: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 이용이 힘든 발달장애인에게 욕구 및 지원필 요도에 따라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및 원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내용: 도전행동지원, 일상생활훈련, 자립생활. 취미활동 등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043-716-2168~9)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5.1 ~ 5.31

▶ 힐링아트 프로그램 협조

활동기간: 5.1 ~ 5.31

▶ 식당배식 지원 및 정리

활동기간: 5.1 ~ 5.31

전화번호: 043-293-9191

전화번호: 043-275-7411

전화번호: 043-234-0840

관리센터: 용암종합사회복지관

관리센터: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굿피플, 롯데칠성음료 보행장애이동 맞춤형 보조

- 기구 지원시업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 신청대상: 만 18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 17명
- (중위소득 120% 미만 가정) ■ 지원내용: 지원품목[맞춤형 보조기구(1인 교육·주거·심리정서 지원, 긴급한 위기상황 최대 250만원)]
- 신청기간: ~2025. 5. 9.(금)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및 홈페이지 접수(사 례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
- 참고: www.miracleaction.kr

[푸르메재단, 2025 현대모비스 장애이동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 · 청소년
- 지원항목: 맞춤형 보조기구(현물)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50만원 한도
- 신청기간: ~2025. 5. 15.(목)
- 신청대상: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사회복 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 의 담당자가 이메일 신청 ■ 지원기간: 2025년 7월 이후
- 참고: purme.org

[해피피플, KB캐피탈과 함께하는 자립준비청년 자 격증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 지원자격: 아동보호시설 퇴소 예정 및 퇴소
-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
- 모집인원: 45~50명 ■ 모집지역: 전국
-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
- 한 자격증 및 자격시험 지원 ■ 접수기간: ~2025. 5. 16.(금)
- 접수방법: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
- 지원기간: 2025년 6월~
- 참고: www.happy-people.kr

[푸르메재단, 2025 장애 및 희귀난치 어린이 심장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만18세 이하의 장애 또는 희귀난 치 어린이/청소년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900만원
- 지원기준: 최근 3개월(2025.01~현재) 실시
- 또는 예정(~2025.09) 된 수술 및 관련 의료비
- 지원기간: 2025년 6월~9월(4개월) ■ 신청기간: ~2025.5. 16.(금)
- 신청방법: 사례관리 가능 기관(사회복지기
- 관, 의료기관등) 담당자신청(이메일 신청) ■ 참고: purme.org
- [월드휴먼브리지, 2025 취약계층 양육부모 심리상 담 지원사업]
- 지원대상: 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심 리 ·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무 또는 산 전우울증 임산부, ② 전문가 소견에 따라 상담 개입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인당 최대 200만원의 심리 상담 료 지원(상담 회차에 따라 매월 분할 지원)
- 신청방법: 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에서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개인 신청 불가)
- 신청기간: ~2025. 11. 3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4. 14.(월) ~ **6. 13.**(금)

국민생각함

공모 개요

대상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 중장년·시니어 누구나

* 팀(2~5인) 및 개인 참여 가능 부문 청소년부(18세 이하), 청년부(19~34세), 중장년·시니어(35세 이상)

주제 청소년, 청년, 중장년·시니어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일상생활·경제활동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공공 정책 개선 아이디어

* 교내·외생활, 국민안전, 노인일자리, 복지정책 등 자유롭게 선정

참여방법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www.epeople.go.kr/idea) 방법1 국민생각함 ② 해당 공모전 배너 클릭

방법2 국민생각함 ② 생각모음 ② 해당 공모전 검색·클릭 진행일정 집수 2025. 4. 14.(월) ~ 6. 13.(금)

사전 심사 1차 심사 온라인 투표 2차 심사* 시상 (7월) **3** (8월) **3** (9월) **3** (10월) **3** (11월) **3** (11월) **3** (11월) **3** (11월) * 2차 심사에서 각 부문별 최종 순위 확정

시상내역

위원장상 총 15건 시상(총 상금 840만원) * 부문별(①청소년 ②청년 ③중장년·시니어) 5건

	등급	시상내역	상금
	대상	부문별 1건(총 3건)	각 100만원
	최우수상	부문별 1건(총 3건)	각 70만원
	우수상	부문별 1건(총 3건)	각 50만원
)	장려상	부문별 2건(총 6건)	각 30만원

유의사항

표절, 도용, 위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수상작으로 선정하지 않으며, 수상작 선정 이후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수상이 취소되고 수여 받은 상장·상금을 환수함

문의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044-200-7274, 7271



자원 봉사자 모집

▶충북사회복지신문 우편발송 작업

관리센터: 명락노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5.1~5.31

관리센터: 단양장애인복지관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자료출처 : www.vms.or.kr

▶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 보조

전화번호: 043-647-3339

▶ 재가노인 식사배달

관리센터: 충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5.1 ~ 5.31 전화번호: 043-855-3000

▶ 사무보조 및 환경정리

활동기간: 5.1 ~ 5.31 전화번호: 043-422-7788

▶ 대비늘 뜨개질 지도

관리센터: 충주성심맹아원 활동기간: 5.1 ~ 5.31 전화번호: 043-843-1432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활동기간: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